

1. 오늘은 창조절 제 7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교회 로고 및 교회 이름의 Calligraphy 공모전
 - 로고 및 캘리 그래피 각각 우수작에 대한 소정의 상금 지급
 - 제출 방법 : ohkc.kim@gmail.com 이메일로.
 - 제출 기한 : 10월 30일 주일까지
4. 10월 주일 안내 및 봉사 - 뿌나 목장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7일: 노지민 양
 - 21일: 이민지 자매님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보현 집사 / 번역: 박지한 형제 / 안내 및 봉사: 뿌나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홀리원 : 10월 30일 주일 예배 후 4시 20분 @교회 주차장

다하나교회

One Heart Korean Church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다하나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예배: 매주 주일 오후 3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_____ 인도자

신앙고백 _____ 다같이

찬양과 경배 _____ 찬양팀과 함께

기도 _____ 황병순 집사

주일학교이동 _____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찬송 _____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_____ 다같이

성경봉독 _____ 창3:1-13 _____ 인도자

설교 _____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_____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_____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_____ 다같이

봉헌기도 _____ 인도자

교회소식 _____ 인도자

파송찬양 _____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_____ 다같이

축도 _____ 김경헌 목사

목회 칼럼 /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지난 주에 가을의 정취를 깊이 느꼈다는 말이 무색하게 로체스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곳 미네소타의 겨울의 혹독함을 10월 중순의 첫눈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봅니다. 집에 설치돼 있는 파이어 플레이스(fire place)를 처음으로 켜보았습니다.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파이어 플레이스의 가스불을 보고 있노라니 에너지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 세계의 현실이 자연스레 겹쳐 보이더군요.

그야말로 세계는 에너지 전쟁터가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연합체인 OPEC과 그외의 산유국들이 함께하는 OPEC PLUS는 원유 생산과 판매를 줄이겠다고 나오자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발트해를 통해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에 어떤 인위적인 타격이 가해져 가스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하지만 러시아가 유럽의 기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수작이 아닌지 유럽 국가들은 의심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국가들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긴장하며 그 공포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 벌어진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대혼란 가운데 처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명이 나아갈 바와 지향해야 할 바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설교를 통해 러시아의 청년들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다 죽는 것은 남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를 방불케 합니다.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을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가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될 때 인류문명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내 자아(ego)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화해와 사랑, 자비와 긍휼, 나눔과 연대가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욕망의 전쟁터가 되어 버린 지구촌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안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